

IFRS17 시행 초기 첫 분기 결산 과정에서 불거진 보험부채 평가 관련 이슈를 시작으로 지난 3년간 보험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평가 기준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IFRS17 시행 4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세한 공시를 통해 시장의 검증에 유도하고, 보험회사 스스로 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는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다.

이러한 공시는 크게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로 구분된다. 양적 정보는 공시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질적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판단과 전략적 시각을 드러낸다.

먼저 양적 정보 측면을 살펴보면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 보험회사와 달리 계리적 가정을 포괄적으로만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손익구성과 보험계약마진(CSM) 변동 등에서 세분화도 미흡하여 정보 이용자가 부채 현금흐름과 보험손익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30년까지 세분화된 기간별 CSM 상각 금액,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등 일부 항목은 해외 보험회사와 달리 국내 보험회사 전체가 공시하고 있다. 이는 감독 회계상 공시요건을 일반회계 공시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양적 정보 측면에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공시가 시장 검증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과 세부 내용을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회계 공시에서는 회사 총계 수준의 손해율만 비교되므로 사망·장해·입원·실손 등 영향이 큰 주요 담보별로 손해율을 구분 산출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회계공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계약 CSM, CSM 이자부리, CSM 상각, CSM 조정 등 CSM 변동사항을 보험회사 IR 자료에서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재의 일반회계 공시는 정보

의 양 자체는 방대하나 정보 이용자가 이를 이해하고 회사 간 비교에 활용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질적 정보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경영전략과 내부 성과지표 등 질적 정보는 해외 보험회사와 달리 국내 보험회사의 일반회계 공시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아비바생명, 매뉴라이프생명 등 해외 주요 보험회사는 내부 성과지표는 물론 회사의 전략 방향까지 공시를 통해 설명한다. 특히 매뉴라이프생명은 '경영진 논의 및 분석(MD&A)'이라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무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연간 비교치와 목표치를 함께 제시한다.

2027년 시행 예정인 IFRS18은 단순히 재무제표 양식의 변경을 넘어, 보험회사가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그간 일부 상장 보험회사의 IR 자료에서 자율적으로 활용되어 온 경영자 성과지표(MPM)가 주식 공시 사항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IFRS18 시행을 계기로 보험회사 공시는 단순한 과거 수치 나열이 아닌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과 미래 수익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험산업이 일반회계공시에서 감독회계공시의 정밀한 양적 정보를 통해 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IFRS18 도입에 따른 질적 정보 공시를 통해 회사별로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한다면 보험회사 경영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계약자·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 또한 한층 공고해질 것이다. 다만, 회사 규모나 사업 특성에 따라 공시 정보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